University of Incheon

송도캠퍼스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12-1)
제물포캠퍼스 402-808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165 (도화동 193-6)
www.incheon.ac.kr

Designed by_ C&C 02.333.5029



글로벌의 창



UI + Global

인천대학교 소식

University of Incheon Newsletter

2012 ● vol. 54









University of Incheon

글로벌의 UI+ Global

contents

UI, Global FRONTIER

04 Special Theme 1 _ 안경수 총장 특별대담
06 Special Theme 2 _ 국립대학법인 전환
08 Hot Issue _ '2011~12 히트상품' 선정
10 UI Global Standard _ 창업지원단 해외창업현장탐방
12 To The World Best _ 인천대학교 인재개발원

UI, Global IDENTITY

14 Dynamic UI _ 풍물패 울림
16 Future Leader _ 장예나 학생 / CJ GLS – Track 참가자
18 UI Mentor _ 정치외교학과 이호철 교수 / 무역학부 채 훈 교수
20 Pride of UI _ 한창원 동문
22 Innovation Incubator _ 공연예술학과 / 패션산업학과

UI, Global COLLABORATION

24 Innovation Project _ 산학연계 공동(디자인) 프로젝트
26 Blue Engine _ 인천대학교 중국관행연구사업단
28 Wide Network _ 인천대학교 MBA 교류회
30 Around The World _ 글로벌 캠퍼스

32 UI is Now _ 인천대학교 소식
36 발전기금 소개
37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39 발전기금 출연자

발행일 2012년 3월 2일 **발행처** 인천대학교 대외협력과_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12-1) TEL. 032-835-8114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밑거름으로
대도약의 자양분을 확보한 인천대학교.
차별화된 글로벌 프로그램과 혁신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동북아를 넘어 세계 명문을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세계를 품에 안는 인천대학교의 힘,

플러스 글로벌!

Plus Global



국립대학법인 전환 안경수 총장 특별대담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향한 UI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인천대학교는
카이스트, 울산과기대, 서울대에
이어 국내 4번째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번 국립대학법인
전환으로 인천대학교는 대학 내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청사진에 대해 안경수 인천대학교
총장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인천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법률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4년부터 국립대학 법인화 작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 대학의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은 인천시민의 여망이기도 했고, 인천지역 최초의 국립대 유치라는 대의에서 출발했습니다. 인천은 전국 16개 시 · 도 중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도시로서 교육수준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교육환경의 획기적 도약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발전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04년부터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전환은 1994년 인천대학교가 시립대학이 된 뒤 다시 한 번 대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1979년도에 사립대학으로 설립되어 1994년 시립으로, 또 시립에서 국립으로 전환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한 대학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학은 30여 년의 짧은 역사 동안 격변의 과정을 거쳐 왔는데, 대학 구성원들도 그만큼 시련과 고통, 기쁨과 영광을 함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역사적 순간마다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점에 대해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화법 통과는 그동안 성취했던 송도 신캠퍼스로의 이전과 인천전문대와의 통합 등과 맞물려 우리 대학의 3가지 난제를 모두 해결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인천대학교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서남부 거점 대학교로서 우리 대학을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계획 아래 'UI비전 2020'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으로 2012년까지 국내 30위권의 지역거점대학, 2020년에는 국내 10위권과 세계 100위권의 명문대학 진입이라는 3단계의 경영목표를 설정했으며, 올해 제 임기 중에 국내 20위권으로 진입시킬 기틀을 다져 놓을 계획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중점 전략방향'을 세우고, ①국립대학법인 전환과 조기 안정화 ②교육/연구 역량강화 ③대학특성화 ④글로벌 인재양성 ⑤전략적 행정체계 고도화를 골자로 하는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대학발전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인천대학교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이 있나요?

법인전환은 자율적 책임경영의 강화를 의미하므로 대학경영 비전과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대학재정 확보를 위해 먼저 우리 대학의 발전계획을 새롭게 짜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정부로부터는 법인화에 따른 대학 운영비와 시설비를, 인천시로부터는 법인전환 시 약속했던 지원금을 보장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도화지역 도시개발사업 이익금, 인천전문대 이월재산 등을 모으면 20년쯤 뒤 1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 법인은 자체 수익사업이 가능한데 우리 대학은 전국대학에서 8번째, 인천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 대학이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인천시민과 인천시, 시의회 관계자, 그리고 우리 대학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는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세움과 동시에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가동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지켜봐 주시고, 내년 국립대학법인 출범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대학법인 날개를 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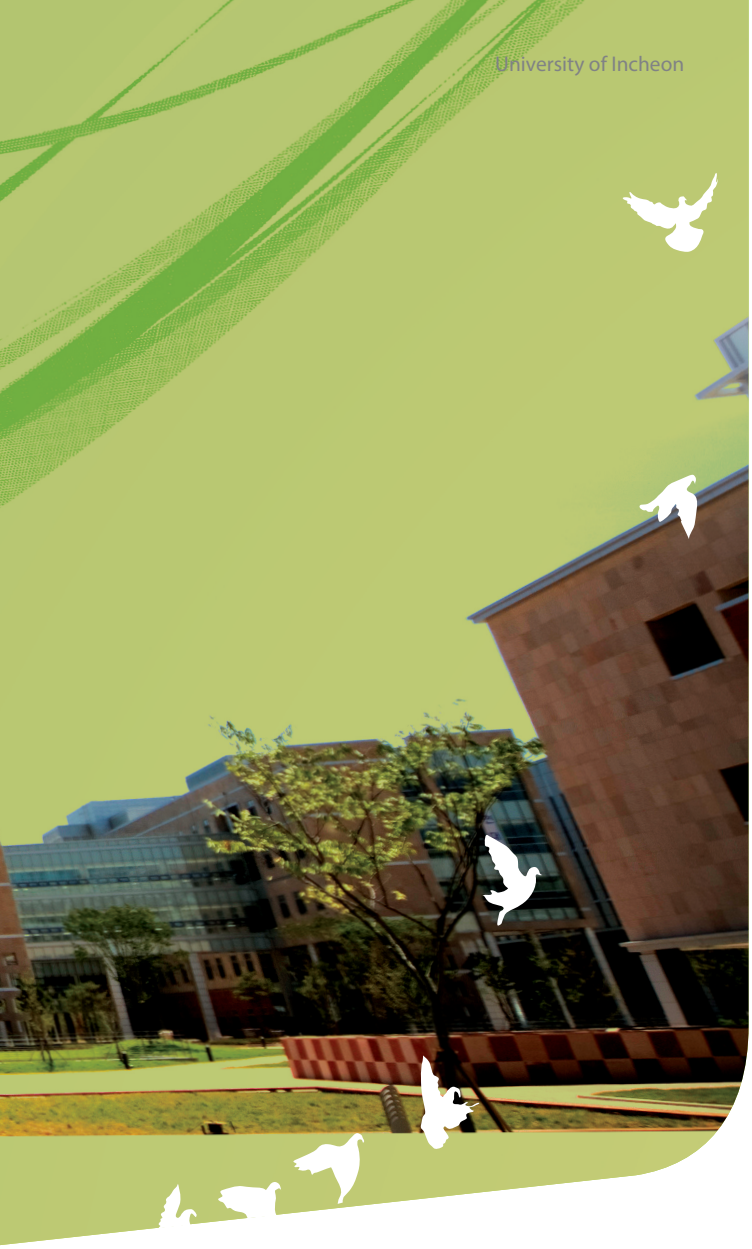


7년 만에 숙원을 이루기까지

인천대학교는 2004년부터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국립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06년 4월 당시 김진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 박호군 인천대총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2007년 17대 국회가 법인화 법률을 제정하기로 여 · 야 간 합의까지 이뤄졌으나 무산되었다. 다시 2009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통과시켜 상임위에 안건을 넘겼다.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 특히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관련하여 여 · 야 간의 첨예한 입장차이 등으로 인하여 18대 국회에서는 법안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천대는 인천시민의 서명운동, 시민단체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인천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계 및 교육계 인사들을 설득하고, 특히 송영길 인천시장이 국회 교과위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작년 12월 30일 극적으로 여 · 야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마침내 지난 7년여의 법인화 과정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국립대학법인 준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인천대학교는 향후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동안 학교 학칙과 정관을 제정하고 학교 재산을 법인 재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013년 초 법인 국립대로 공식 출범한다. 우선 인천대 법인화법에 따라 첫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둘째, 국립대학법인 설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준비위원회'가 대학 내에 설치된다.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정관작성, 최초의 이사 · 감사 선임 및 승인신청, 법인 설립등기 등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재산이전, 조직, 인적구조 개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운영계획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법인설립 준비팀을 구성, 필요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대학구성원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7년여의 진통 끝에 국립대 법인화를 이뤄낸 인천대학교는 운영 시스템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재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등 2013년 국립 인천대학교의 새 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며, 국내 10위권, 세계 100위권 명문대로의 대도약을 향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였다.



최고 의결기구는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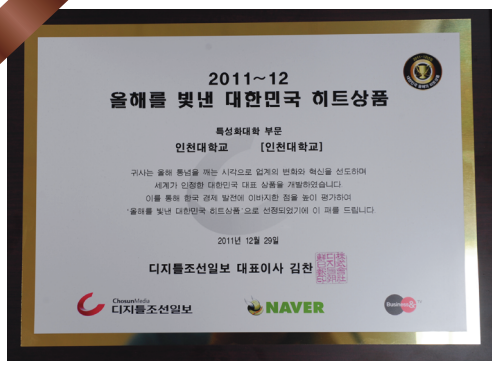
기존에 인천시가 인천대를 운영했다면, 이제 법인 인천대에서는 이사회가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가 된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해 교육과학기술부 · 기획재정부 장관, 총동문회, 자치단체장 등이 추천한 9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직선으로 선출되던 총장도 이사회에서 뽑는다. 지금까지는 후보를 대상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했으나, 앞으로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총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등록금 오를까 내릴까

이번 법인화 전환의 뒤편에는 대학이 법인으로 될 경우 교육의 공공성이 떨어져 등록금 인상 사태로 이어지리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시와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향후 15년간은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는 법인 인천대 출범 이후 15년간 지원을 약속했다. 또 국립대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또한 자칫 대학의 기업화로 인해서 경제성이 없는 인문 사회과학이나 기초학문 연구가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인천대의 경우도 법인화추진 초기단계에서 같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제정된 법률에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 · 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 · 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천대학교는 조만간 기초학문분야의 지원 및 육성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모든 학문분야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성화된 글로벌 역량이 쑥쑥!

'2011~12 히트상품' 특성화대학 부문 수상 영예



인천대학교가
네이버와 디지틀조선일보가 공동 주관한
'2011~12 히트상품'에 선정됐다.
특성화대학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인천대학교는
특성화교육에 엔진을 달고 핵심역량 강화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左〉박인호 교무처장, 〈右〉안경수 총장

인천대학교의 미래, 5대 특성화 사업

인천대학교의 5대 특성화 분야는 동북아 국제통상 및 물류, 지능형시스템융합, BNT기반 생명과학, 도시과학, 지역인문학이다. 인천대는 이러한 대학 특성화를 통해 인천지역의 지식정보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첨단산업 육성과 로봇랜드나 물류복합단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송도 국제도시의 첨단 바이오단지와 의료복합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신설된 생명과학기술대학을 중심으로 송도 입주 기업이나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현장중심형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5대 특성화 분야의 출발점

대학특성화 분야는 글로벌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된 대학 발전계획인 'U비전 2020'에 따라 선정되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를 통해 대학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확산시켜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시작된 것. 5대 특성화 분야는 시립대학이면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유일한 종합대학이라는 특수성과 우리나라 유망산업분야의 인력수요전망, 대학 경쟁력 및 학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정된 결과물이다.

지리적 이점 살린 생명과학기술대학 특성화

인천시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신약단지와 생물산업연구단지, 대학의 R&D기능을 연계하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분야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셀트리온,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와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삼성이 2조 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송도가 바이오산업 허브로 크게 각광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천대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작년 정부로부터 이미 생명과학기술대학 설립을 인가받았고, 이번 신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인천대는 생명과학기술대학의 특성화 육성을 통해 송도바이오단지, 송도사이언스 빌리지 등에 입주예정인 병원 및 바이오 분야 기업체에 현장인력 공급은 물론 응용연구 및 상업화 연구 수행에 중추적 역할을 할 인력들을 주도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한 특성화 전략

인천대학교는 글로벌화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2010년에 대학 재정으로 학생 70여 명을 미국 볼스테이트 대학에 단체로 어학연수를 보낸 바 있다. 또한, 러시아나 미국 등의 대학 교수들을 특별 초빙하여 영어로 계절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수들의 영어강의 활성화, 학생들의 어학실력 향상, 실용적 국제교류강화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국제화 영역에서 특화된 학생들을 배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송도지구 11공구에 글로벌캠퍼스를 조성하고 해외 명문대학 분교 5개소, 유명연구소 분원 3개소를 유치하여 이들 대학과의 공동연구, 공동학위제 등을 통해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천대학교 재학생은 유학하지 않고도 해외 유명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011~12 히트상품'은 무엇?

'2011~12 히트상품(2011~12 Consumer Power Hit Awards)'은 제1회로서 국내 모든 기업의 내구재, 소비재, 서비스 상품, 지자체 및 공공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최고의 히트상품을 가려내는 상으로, '2011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과 '2012 트렌드 리딩 상품'을 통칭하여 디지틀조선일보와 네이버가 공동주관하는 행사이다. 이 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및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상품을 선정하고, 이를 소비자와 산업계에 널리 알려 각 부문의 시장에서 자사제품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히트상품은 먼저 상품인지도, 시장점유율, 매출액, 실적자료, 언론보도 등 기초자료를 통해 후보상품을 확정하고, 소비자 투표 및 현장 실사를 거쳐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산업부문별로 선정된 히트상품들은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등이 조화를 이루어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가치와 만족을 얻고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상품들이 선정되었으며, 로이터, AFP, AP, 구글, 조선일보, 네이버, 페이스북 등 10여 개의 국내외 매체에 보도되었다.

Mini Interview



● **고덕봉 팀장** 대외협력과

특성화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질적 팽창을 선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대학특성화는 학교를 대표하는 브랜드, 즉 대표경쟁력을 창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학내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5대 특성화 분야는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대학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1~12 히트상품' 수상을 계기로 자율적이고도 독창적인 특성화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창업의 꿈, 한발 앞으로

창업지원단 –
2011년 해외창업현장탐방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국내창업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탐방하여 국제적인 창업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주제별(mission) 실전창업 체험을 통해 청년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해외창업현장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11년 해외창업현장탐방'은 지난 1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광저우에서 이루어졌다.
대학생 창업강좌 중 심화과정을 수강하는 30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5인 1조로 구성되어
광저우 현지 시장을 탐방, 각자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큰 꿈을 만들어나갈 미래 CEO들의 체험기를 함께한다.



● 박준현

● 원종철

박준현 경제학과 06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전

이번 중국 시장조사는 내게 있어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현재 '아미래'라는 유아복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내게 중국 사입 시장 방문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호기였기 때문이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도착한 중국은 대륙에 걸맞은 거대함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시장에서도 그 거대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한국에도 동대문과 남대문을 비롯한 큰 의류시장이 있지만 광저우의 의류시장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건물의 규모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옷들이 시선을 떼지 못할 정도였고, '짝퉁천국'으로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교한 제품들이 많은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본격적인 미션수행을 위해 우리 조는 시항이라는 점포에서 여자 니트를 구매했는데, 한국에서는 소매가격 12,000원 정도의 물건이 중국에선 도매가격으로 25위안~33위안(4,600~6,100원) 정도의 싼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했다. 미션 수행비용 300위안을 가지고 여자 니트 11장을 구입했으니 12,000원으로 셈해도 132,000원 어치의 옷을 55,500원에 산 셈이다. 우리 조는 가격과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아름다움과의 전쟁 '美War'라는 이름으로 니트류를 창업 아이템으로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번 중국 사입 시장 조사를 통해 쇼핑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엇보다 중국어를 하지 못하면 중국시장 공략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 종 철 정보통신공학과 09

창업의 첫걸음이 된 캐리어

창업에 문외한이었던 까닭에 누구보다 사전준비를 열심히 하고 광저우로 향했다. 첫째 날 밤에 신동길 강사님이 실전창업 조별 아이템 회의를 진행했는데, 우리 조는 원래 배기바지를 아이템으로 정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배기바지를 찾기 힘들 것 같단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캐리어, 그 중에서도 하드캐리어를 아이템으로 정했다. 캐리어는 부피가 커서 한국에 들여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 개만 팔아도 적잖은 수익을 남긴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날, 우리는 가이드 선생님 한 분씩을 배정받고 각 조당 300위안을 받았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의류와 신발을 파는 시장,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애견용품과 가구를 파는 시장에 갔다. 꾸이화강이라는 가방도매시장에서 하드캐리어를 찾아 나섰는데, 의외로 캐리어 매장을 찾기가 어려웠다. 여러 건물을 헤맨 후에야 하드캐리어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을 찾았고, 한 개보다 두 개를 구입하는 것이 흥정이 쉬울 것 같아 18인치와 20인치 제품을 동시에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 상인은 처음에 두 제품의 금액을 500위안도 넘게 제시했고, 우리는 준비해온 계산기를 들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흥정을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375위안에 캐리어를 구입한 우리 조는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물품 구매 과정들을 발표하여 1등을 차지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해외창업 현장탐방을 통해 그간 생각해보지 않았던 창업에 대한 꿈이 생겼을 정도로 3박 4일간의 경험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다.





꿈, 날개를 달다

성공 취업의 든든한 동반자 –
인재개발원



국립대학법인 출범과 송도 新 캠퍼스 시대의 중심에서
학생들이 인생의 비전을 설계하고 행복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인재개발원.
말로만 그치는 취업지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명확한 취업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곳을 찾았다.

취업률이 곧 대학 경쟁력!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요즘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고용안정, 즉 청년실업의 해소이다.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듯 정부의 대학 지원기준 중 취업률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 풍부한 정부 지원은 물론 입시에서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시대가 되면서 취업문제는 이제 대학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대학교의 인재개발 및 취업지원사업의 중추에 서 있는 인재개발원은 대학 발전을 위한 핵심부서로 주목받고 있다.

학년별 맞춤형 취업 · 진로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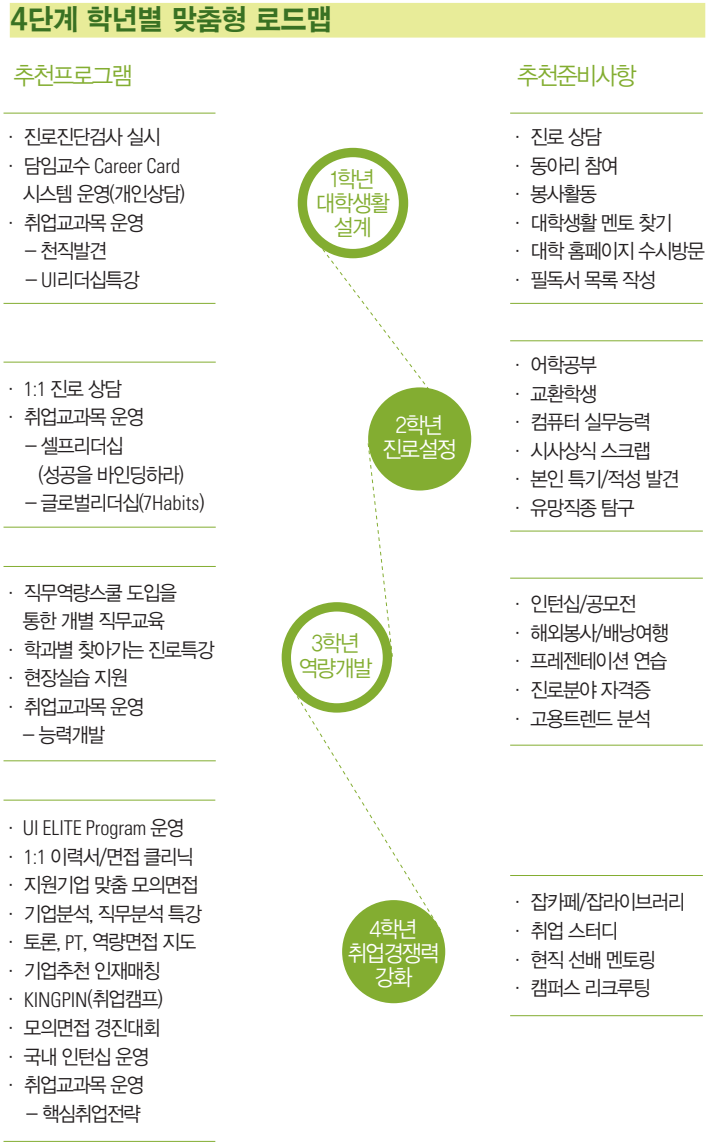
인재개발원은 모든 학생이 자신에게 알맞은 취업 전략을 구축하고, 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고학년 중심의 진로 · 취업 교육에서 벗어나 저학년부터 실질적인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4단계의 학년별 맞춤형 로드맵을 수립, 각 단계에 맞는 취업 교과목을 개설 ·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존의 UI리더십특강, 능력개발, 핵심취업전략 이외에도 1 ·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교과목 '천직발견',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7가지 습관', '성공을 바인딩하라' 등 3개 교과목을 신설하여 저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10개 학과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과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전체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차별화된 취업지원 서비스

진로 · 취업지원을 위한 One-Stop Service 공간, 잡카페 '라온'에는 취업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여 취업전략 상담을 비롯해 심리검사, 이력서 클리닉, VTR을 통한 면접 클리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내 위치한 테마도서관 'Job Library'에는 자격증, 인 · 적성 수험서 등 취업 관련 도서와 간행물 및 기업발간 사보를 비치하여 취업 및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의 인적사항, 학업, 진로 · 취업 등의 내용을 담은 Career Card를 진로 및 취업지원에 활용하는 학생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취업캠프 KING PIN Program, 모의면접 경진대회, 리더십 워크숍, UI 멘토링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취업 ·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단계 학년별 맞춤형 로드맵



Mini Interview



● **성미영 원장** 인재개발원

'행복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취업 교과목 개설을 비롯해 취업 정보 제공,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Job Cafe 등 다양한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찾아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학을 만드는 힘은 바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는 학교 전체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회 진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인재개발원에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합니다.

풍물패

'울림'

얼쑤!
어우러져 노니는
한마당을 펼쳐보세 ~

우리의 멋과 흥을 즐기며 발전시키고 있는 인천대학교 풍물패 '울림'.
젊음의 열정과 에너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있는 그들의 걸쭉한 한마당 속으로…





"행복의 엔도르핀을 울려라"

풍물패 울림(http://www.freechal.com/oolrim)은 1986년 창립되었다. 울림은 말 그대로 악기를 처음 다루는 사람이든 익숙한 사람이든, 꽹과리든 장구든 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기운이다. 풍물패 울림은 이런 뜻에서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감동의 울림을 전하자는 의미를 담아 출발했다.

"악기의 울림은 너무나 정직해서 우리 신체와 감정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특성이 있어요. 징~하는 진동이 몸을 울리면 울릴수록 흥도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죠. 저희 동아리는 근심걱정 시름에 젖은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울림으로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순간을 나누고 싶어요."

2011년 울림의 수장 이수정 학생이 밝히는 동아리의 존재이유다. 풍물패 울림의 전신은 민속탈춤동아리 '탈패'. 탈춤의 특성상 반주를 넣어 줄 악기가 필요한데 그 악기를 담당하던 선배들이 탈패에서 따로 나와 울림을 창단했다고 한다.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여"

풍물놀이(농악, 풍물굿, 메구)는 흔히 치배와 잡색으로 구성된다. 치배는 풍물(악기 – 꽹과리, 징, 장고, 북, 소고)을 연주하며 춤을 추는 사람을 일컫고, 잡색은 각기 배역을 가지고 춤을 추며 풍물판의 흥을 돋우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울림은 10명의 동아리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풍물을 연주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공연 시에는 꽹과리 한 명, 장구 2~3명, 북 2명, 징 한 명의 구성으로 악기 밸런스를 맞춘다. 공연은 주로 내·외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뤄지고 일주일에 세 번, 매 2시간가량 연습한다고.

"풍물패 공연은 갑작스럽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습이 곧 공연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죠. 방학 때는 공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남 고창 등지로 일주일 동안 전수(전문적으로 풍물을 가르치는 선생을 찾아가 수업을 받는 것)를 갔다 오곤 해요."

울림 구성원들이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인천대학교의 해외학술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3주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지의 문화를 체험하고 풍물패 공연을 펼치고 돌아온 것. 그 중에서도 독일 뮌헨에서의 거리공연이 가장 인상적이었단다. 뮌헨 시내 한복판에 복색을 갖춰 입고 자리를 잡자마자 마치 사람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벽처럼 현지인들이 몰려들어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현지인들에게 악기 다루는 법도 알려주고 사진도 함께 찍는 등 귀중한 경험을 하고 왔다. 또한 성공적인 길거리공연을 통해 '우리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몸소 느끼고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덤으로 얻었다.







"잔잔한 울림으로 소통하리"

풍물패 울림의 풍물에는 음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교한 악보에서 비롯된 음악적 표현이 모자랄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에도 젊음에도 정답은 없지 않은가. 울림에는 감성을 흔드는 열정이 있고, 진심이 있다.

"저희 동아리의 풍물에는 잔잔한 울림이 있어요. 따뜻하고 사람 내음 물씬 풍기는 잔잔한 울림은 지축을 흔드는 감동에 버금간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작지만 귀중한 감동을 만들어내는 울림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 2011화순빅터코리아그랑프리골드 국제배드민턴대회 2관왕 달성

셔틀콕의 여제를 향하여 스매싱!

● **장예나** 체육학부 08

누구에게나 땀의 대가는 중요하다. 특히 운동선수의 경우 그랑프리를 차지하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땀을 담보로 하기에 더욱 특별하다. 젊음을 밑천으로 꿈을 담금질하고 있는 특별한 선수, 셔틀콕에 청춘을 건 그녀의 이야기.





아름다운 과정이 있어 더욱 빛나는 그랑프리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의 눈에 띄어 배드민턴을 시작한 장예나 학생. 재미로 시작한 '놀이'가 '운명'이 되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주니어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한 장예나 학생은 현 인천대학교 안재창 감독에 의해 무한한 가능성과 장래성을 높이 평가받아 스카우트 된다. 그러나 인천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때 인천으로 전학을 온 이유로 규정상 1년 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

"선수에겐 시합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감독님께선 1년 아무것도 아니라며 격려하셨지만 고등학생이었던 제겐 그 말씀이 위로가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매일 연습과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안 감독님의 도움으로 이겨냈어요."

그 결과 장 선수는 다음해 첫 대회 후 국가대표팀에 발탁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후 2008년 전국체육대회 여자대학부 단체 1위, 2010년 세계여자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단체 1위,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 동메달, 2011년 전국체육대회 여자대학부 단체 1위를 이끌었고, 개인전에서는 2008, 2009년 전국체육대회 여자대학부 복식 1위, 2011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여자복식 1위, 2011년 화순빅터코리아그랑프리골드 국제배드민턴대회 2관왕(여자복식 1위 , 혼합복식 1위)을 차지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경기는 2011년 전국체전과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에서의 우승이라고. 장 선수는 4학년이 되면서 인천대학교 배드민턴부를 졸업한 선배들의 명성에 누가 될까 하는 마음에 늘 부담감과 책임감을 안고 있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는 단 · 복식 모두 출전해야 하는 부담과 국가대표팀 선수만 4명에 달하는 숙적 한국체대를 상대해야 했다. 중국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도 마찬가지로 녹록지 않았다. 장 선수는 긴장 탓에 실전에서의 기복이 심한 편인데, 이를 잘 아는 감독은 해법으로 책 한 권을 건넸다고 한다.

"운동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무조건 책을 읽으라는 감독님의 말씀대로 '강심장이 되라'는 책을 읽고 실천했더니 긴장도 덜 되고 경기도 잘 풀리더라고요(웃음). 모든 승리가 그러하듯 저의 우승 뒤에도 감독님과 코치님들, 동료 · 후배들의 하나된 힘이 무엇보다 크게 자리잡고 있어요."

졸업 후 실업팀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인 장예나 학생은 아직 이뤄나갈 것이 더 많은 가능성 그 자체이다.

"제 자신을 더욱 갈고 닦아서 저의 오늘을 있게 한 분들께 보답하고 싶어요. 그 첫 단추로 올해 슈퍼시리즈급 이상 세계대회에서의 우승이 목표예요. 나아가 2년마다 열리는 우버컵(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에서의 우승,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해 승리의 스매싱을 날리고 싶어요."

● CJ GLS-Track 참가자

물류 DNA를 지닌 글로벌 물류전문가를 꿈꾸다!

● **마상우** 경영학부 08, **배정수** 무역학부 08, **박민중** 무역학부 06, **박송이** 무역학부 10, **송원종** 산업경영공학과 08, **임연정** 무역학부 10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세계 최고의 물류 전문가라는 꿈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물류 DNA를 더욱 계발하고 있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 속으로!





글로벌 물류전문가를 향한 희망찬 도약

물류산업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갖춘 인력을 선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맞춤형 물류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CJ GLS가 주관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인 CJ GLS – Track은 인하대, 한국항공대 등 CJ GLS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대학의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2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총 4번의 방학 동안 CJ GLS의 3PL, 택배, 포워딩, 해외본부 등 4개의 본부를 순환하며 인턴십을 수행하게 되는데, 인천대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한 부서에서 한 가지 업무만 보는 일반적인 인턴십과는 달리 회사 내 4개의 사업부를 고루 둘러보며 물류 전반의 흐름을 익힐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참가자 전원에게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CJ GLS 해외법인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글로벌의 기회도 준다. 이외에도 3, 4학년 전 학기 전액장학금이라는 파격적인 혜택과 더불어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서 특별채용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차세대 물류전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만큼 엄격한 선발 과정은 당연지사. CJ CLS 공채와 동일한 형식의 서류전형, 인 · 적성 검사, 역량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이 결정될 만큼 그 선발과정은 까다롭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최종 선발된 인천대학교 마상우, 배정수, 박민중, 박송이, 송원종, 임연정 학생. 3PL, 택배, 포워딩 등 각자 맡은 바 업무는 다르지만, 학교 수업과는 또 다른 실무 경험을 통해 하루하루 성장해가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회사는 학교와는 또 다른 사회예요. 인턴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 보고 원만한 회사생활을 위해서 가져야 할 덕목도 배우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는 문화에서 한 구성원이라는 보람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더불어 실무 경험을 통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물류 전반의 흐름을 익히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직원들에게 적극 질문하며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턴 활동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CJ GLS –Track 참가자들. CJ GLS –Track에 관심이 있는 인천대학교 학우들에게 솔직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패기 있게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다 보면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국제정치학회(KAIS) 회장

국제 정치학 무대를 이끄는 리더

**지난 12월
제57대 KAIS 회장으로 선출된
이호철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외교 전문가다.
국제정치학 무대를 누비며
인천대학교가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창'으로
웅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이 교수의 활약상.**









정치외교학과 **이호철** 교수

이호철 교수는 '나라 장사꾼' 혹은 직업외교관의 꿈을 키우던 청춘이었다. 하지만 대학시절 '꿈'과 '시대의 요구'라는 청춘의 숙제 사이에서 고민한 끝에 학자로서의 길을 택했다. 현장에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문 외교안보전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이 교수는 지난 12월에는 제57대 한국국제정치학회장에 선출되었다. 한국국제정치학회(KAIS)는 국제정치 · 외교안보 · 남북통일 및 국방 분야에서 1,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국제정치학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 이 교수는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KAIS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학회의 영문저널을 국제공인학술지(SSCI)로 등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학자로서 가장 큰 보람은 연구결과가 국내 혹은 해외의 학계에서 인정받는 것이겠지요. 최근 제가 수년간 매달렸던 중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가 이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학술지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3월호에 게재될 예정인지라 개인적으로 무척 기쁩니다. 교수로서 저희 학생들이 지적으로 성장해가고 사회의 주역으로 활약할 때면 연구 활동과는 다른 큰 보람을 느낍니다."

현재 사회과학대학장을 맡고 있으며 2010년 인천대학교 우수강의 교수로 선정되기도 한 이 교수는 중국정치 · 동아시아국제정치 전문가로서 중국학술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인천대를 중국연구의 메카로 정비함은 물론 인천대 사회대의 대외평가를 전국 10위권으로 유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지식의 바다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스스로 지식의 바다에 뛰어들어 즐겁게 유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식을 쏟아내기보다는 문제의 본질과 실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종강, 졸업 후에도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저는 딸아이의 이름이기도 한 '在仁'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늘 仁에 있으라'는 의미인데, 仁은 유교의 최고덕목이고 天, 地, 人의 조화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살기를 좇다 보면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글로벌 재원으로서 모험하고 도전하여 더 큰 세상을 열어가길 바라며, 누구나 알지만 의미가 남다른 'Boys, Be Ambitious!'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48회 무역의 날 기념 산업포장 수상

세계를 호령하는 무역 인재를 위하여

무역의 첫 단추는
교육에서 시작되고 가장 중요한 키는
사람에서 비롯된다는
채 훈 무역학부 교수.
학자로서 무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새기고
무역 인력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해내고 있는
채 교수의 무역 인생이야기.

무역학부 **채 훈** 교수

채 훈 교수가 무역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의외로 소박하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체제가 중화학공업체제로 전환되고 수출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 TV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항공기 트랩에서 내리는 세일즈맨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세계시장을 활보하는 무역인이 되겠다는 소망을 키웠다. 중 · 고등학생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봄직한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물론 열하사막의 현장을 누비는 무역인은 아니었지만, 학문을 통해 더 큰 무역인을 길러내고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주춧돌을 놓는 학자이자 무역인으로서 중요한 몫을 일궈왔다.

채 교수는 인천대 부총장을 비롯해 (사)한국국제상학회 회장, (사)한국무역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상경분야 최초로 무역학회지를 SSCI 등재지로 선정되도록 힘쓰는 한편 GTEP(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프로그램)사업 등 안팎으로 족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어떤 업적을 쌓는 일보다 제 손으로 가르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일선 현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자랑스럽고 커다란 보람을 느낍니다. 모든 일이 사람에 의해 시작되고 그 성패 역시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역의 경우 세계시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문 무역인을 양성해내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는 무역학부 교수로서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주최 · 무역협회에서 시행한 Trade Incubator사업, 지식경제부 선정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공로의 결실로 채 교수는 지난해 제48회 무역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제 개인의 업적이라기보다 한국무역학회를 대표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 1조 달러 달성 시점에서 수상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네요. 앞으로도 융합학문으로서의 밀도 있는 교육과 전문인을 키워내는 일에 묵묵히 전념할 것이고, 더불어 더욱 연구하고 채워나가는 자세로 무역업계에 직 · 간접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겠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희망 길잡이

한창원 기호일보 대표 / 경영학과 81



힘겨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언제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한창원 동문.
지역언론사의 수장으로서, 인천탁구협회 회장으로서, 향진원 후원회장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그 속에서 따스한 빛을 뿜어내고 있는 그를 만났다.
다가오는 봄의 향기만큼이나 달콤하고 따뜻한 사랑의 향내를 느끼며…

인천 · 경기지역의 여론을 담당하는 언론사의 수장으로서 지역신문의 현재와 발전방향에 대해.

기호일보에 몸담은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인천 ·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서 그동안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담아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기호일보는 지역신문발전우선지원대상 신문사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신문들, 특히 수도권 지역신문들은 경영에 있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은 지역신문임에도 세계적인 권위지로 평가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신문이 중앙지에 비해 설 자리가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 · 경기지역의 경우 약 25~30개가량의 지역신문이 있는데, 전체 지역신문 구독률이 채 1%도 안 된다는 사실이 지역신문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지요.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문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지역신문사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외에도 시 ·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의거, 지역신문발전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신문사는 기획기사를 비롯해 신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지역민과 밀착하여 공공저널리즘을 뿌리내리고 풀뿌리 언론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저는 지역의 언론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과 정서가 살아있는, 재미있고 따뜻한 신문을 만들며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0년 사회봉사상(문화복지부장관상), 2010년 사회봉사상(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사회봉사활동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데.

봉사는 다소 거창한 이름이고, 저에게는 그냥 생활입니다. 오히려 제가 봉사한 것의 몇백 배는 다시 돌려받고 있는 것 같아 항상 부끄럽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고, 중 · 고등학교는 야학을 통해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면 야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했었지요. 이후 야학을 운영하며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일보에 입사하게 된 계기도 사실 야학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다른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어느 날 지방근무를 발령받았어요. 당시 야학을 운영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터라 야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기호일보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야학 덕분에 인연을 맺게 된 아동복지시설 향진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 사업 중 최근에는 퇴소하는 아이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퇴소하게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사회에서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그래서 후원회를 결성해 퇴소하는 아이들의 자그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신지체 아이들의 사회적응훈련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회사 경영자로서 신념이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 회사가 1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찾는 회사', '직원과 함께하는 회사'가 되어야겠지요. 직원이 아이를 낳으면 아기 옷을 선물하는 등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직원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회사, 직원과 회사 간의 융화가 잘 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저의 작은 꿈입니다. 좋은 기사를 많이 쓰는 전국 최고의 신문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직원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좋은 기사, 좋은 신문이 나오는 것이고요. 가장 알차고 내실 있는 1등 회사,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인천대학교 후배들에게 한 말씀.

인천대학교가 대내외에서 인정받으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는 학교와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 법인 전환을 앞둔 현시점에서 미래의 인천대학교에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만들어갈 사람이 바로 인천대학교 후배 여러분입니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는 무엇보다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후배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갈 인천대학교의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꿈은.

현재 인천탁구협회 회장으로서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를 3년째 인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가 한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프로투어 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5월 16일~20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외에도 향진원(아동복지시설) 후원회 회장을 비롯해 예림원(지적장애인시설) 후원 활동 등 현재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여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제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선배로서 뒤에서 서포트하고 때론 방패가 되어 주면서 후배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공감각적인 능력을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들이 다 모였다! 공연예술학과



연기, 연출, 무용의 커리큘럼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형 학과가 있다.
바로 인천대학교가 송도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신설한 공연예술학과가 그것.
최고 수준의 시설과 차별화된 등록금, 그리고 지성과 끼로 충만한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땀과 열정의 무대를 소개한다.

하나만 원해? 우리는 모두를 원해!

공연예술학과는 2010년 연기와 무용을 중심으로 공연예술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된 학과이다. 일반적인 무용학과나 연극학과와는 달리 무용에서부터 연기, 연출에 이르기까지 실기와 이론을 아우르는 커리큘럼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연기수업만 해도 무대연기, 영상연기로 나뉘고 그 밖에 한국무용, 현대무용, 난타, 뮤지컬 등의 실기수업과 영화연출을 배울 수 있는 연출론 수업, 대중문화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자랑한다. 배움의 폭이 이처럼 넓다 보니 신문방송학과나 미술학과 등 타 학과 학생들이 공연예술학과의 수업을 수강할 정도로 학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하나 신설된 학과답게 강의실과 연습실, 공연장 등의 시설 면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게다가 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는 시립에서 국립으로 도약하는 젊은 대학으로서 사립대학의 동일계 학과보다 등록금의 부담은 줄이고 열정과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신입생 선발기준. 실기 중심으로 선발하는 관행을 깨고 1차는 성적 100%로 선발하고, 2차에 실기성적을 반영함으로써 지성과 끼를 갖춘 가능성의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연극 '다녀왔습니다'

공연예술! 즐겨라!

공연예술학과는 한 학기에 1회의 정기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학과 1기 학생들은 학과 설립과 함께 시행착오를 함께했기 때문에 첫 번째 워크숍에서의 공연이 기억에 남는다. 원래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무대에 올리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눈물을 흘려야 하듯, 첫 작품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터. 기다림과 간절함 속에 작년 12월, 연극 '다녀왔습니다'를 무대에 올렸다. 호평과 감동으로 그간의 고생을 보답 받은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은 이미 다음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즐겨라'로 마무리되는 학과의 구호에서 알 수 있듯 공연예술학과는 즐기는 청춘의 것이다. 경쟁을 넘어 어우러져 즐길 줄 아는 자세, 이는 지성과 재능에 버금가는 공연예술학도의 중요 덕목이다. "난 뮤지컬만 할 거야.", "난 무용만"이 아니라 "이 무용은 연기에도 활용할 수 있겠는데...?", "이 뮤지컬 노래를 연출에 적용해볼까?"라는 공감각적인 사고와 배움을 원한다면 주저 말고 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의 문을 두드려 보시라.



西으로 가는 달처럼…

세계 패션산업에 화려한 날개를 달
팔방미인을 키운다!
패션산업학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정답은 누구나 알고 있듯 '의식주'이다. 이 중 의류는 신체적 사회적 기능을 지닌 필수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패션산업.
따라서 트렌드를 예측하고 세계 패션산업의 지도를 바꿀 새로운 얼굴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 주인공들이 싹을 틔우고 있는 곳, 바로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이다.





과학적인 실험과 천부적인 감각으로 승부

패션산업학과는 1989년 의생활학과로 자연과학대학 내에 신설, 2002년 패션산업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명성을 더해오고 있다. 글로벌패션전문인 양성, 산학연계교육강화, 글로벌패션연구특화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패션산업학과는 디자인실, 의복 재료실험실, 특수 의복 구성실, 인공 기후실과 특수 제작 실험실 등 우수한 교육 환경 및 시설을 갖추고 글로벌패션 리더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소재기획에서 디자인, 제작, 판매와 소비에 이르는 패션산업 전체 과정의 이해에 필요한 이론을 습득하고 실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 인천대 패션산업학과의 특징. 섬유소재 분야, 의복제작 및 생산 분야, 패션디자인 분야, 패션마케팅 분야, 패션문화사 분야 등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되며, 강의와 함께 실험 · 실습 및 프로젝트 형식의 과제수행, 발표와 토론, 현장조사, 연 1회의 과제발표회와 졸업작품 발표, 인턴프로그램 참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산업현장 이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있다.

실전 통해 세계 패션산업 이끌 전문가 양성

인천대 패션산업학과는 국내 의류학 관련 학과 중 처음으로 학과 차원에서 국제학술교류를 시작한 학과이다. 국제적 감각을 가진 패션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여러 대학들과 학술교류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1997년 중국 최대 규모의 4년제 패션전공 대학인 북경복장학원과 학술교류를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양교의 협력 하에 한 · 중 공동학술세미나와 공동 패션쇼, 공동연구, 특강, 상호 교환학생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학술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졸업작품패션쇼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국제 교류 패션쇼, 경인지역 미스코리아대회 의상협찬(2008년), 15개 대학이 참가하는 '2009 대학패션위크' 등에 참가하여 수상과 함께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학과의 커리큘럼이 탄탄한 덕에 졸업 후 학생들의 진출분야 또한 다양하다. 소재 및 패션업체의 디자이너, MD에서부터 의류기획자, 무역회사 바이어, 패션잡지사 기자, 쇼호스트, 무대의상 담당 등 패션을 매개로 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패션산업학과에서는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인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세계 패션마켓을 주름잡을 전문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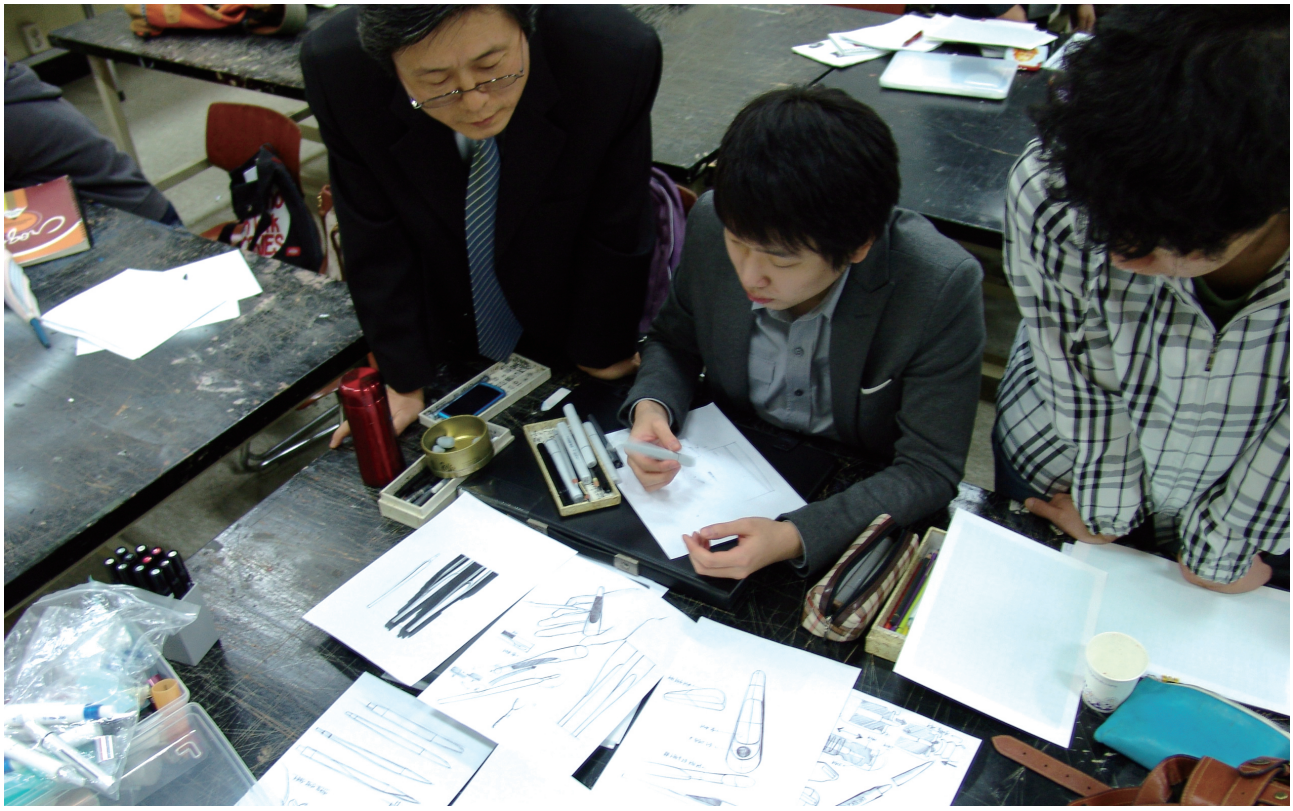
디자인학부 – (주)연우

산학연계
공동(디자인)프로젝트



‘All about Cosmetics’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산학협력은 대학과 기업이 서로의 전문지식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작업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와 (주)연우의 산학협력은 화장품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로서,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업의 지원이 빛을 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산학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어내다

이번 산학연계 공동(디자인)프로젝트는 2011년 5월 24일,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이하 산중단)과 (주)연우의 MOU 체결로 시작되었다. (주)연우는 국내 최대 화장품 포장재 전문 생산업체로 세계 100대 화장품 업체 중 '로레알'을 비롯한 상위 36개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에 약 2,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양 기관은 수차례 상호 방문해 프로젝트 진행사항을 논의했고, 이를 반영하여 2011년 9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인천대 디자인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제품디자인 수업을 진행했다.

프로젝트명 'All about Cosmetics'는 디자인개발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했다. 이어 자료수집과 소비자의 요구사항 파악, 기술 및 사용성 평가를 마친 후 'easy to use'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춰 디자인 컨셉 회의, 아이디어 스케치, 렌더링, 도면, 3D 시뮬레이션, 모델링, 전시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스킨케어, 바디케어, 헤어&메이크업 등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대전제로 화장품과 전자제품, 화장품과 IT라는 융합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여기에 재활용, 재사용, 자원절감 등의 에코디자인을 지향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였다.

기업의 지원과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빚어낸 'easy to use'

본격적인 사업수행은 공모전 형식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디자인학부 2학년 학생 36명이 참여했다. 2~3인이 한 팀으로 구성돼 팀별로 이루어졌는데, 현장견학과 2~3회의 프레젠테이션, 기업디자이너와 학생들 간의 수시미팅을 통해 심도 있게 진행된 점이 이번 산학협력의 특징이다. 지난 12월 5일에는 인천대 산중단 회의실에서 결과물에 대한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장려상 5팀을 선정했다. 대상의 영예는 허윤정, 정은이 학생의 'shadow pact'에 돌아갔으며, 삼각형 모양의 팩트를 열면 반자동으로 인해 한 면이 이중 분리되면서 새도우팩 양면을 돌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부피를 최소화한 점이 시선을 끌었다. 이외에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상품성이 결합된 제품 개발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로서 이름을 올렸다. 산학협력의 최종 결과물은 지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디자인페스티벌'에 전시되기도 했다.



Interview



장병건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단 단장

"기존의 산학협력이 주로 대학에서 기업을 찾아가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산학 프로젝트 수업은 기업이 학교수업현장으로 들어와 적극적으로 참여한, 맞춤형 산학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품을 개발해 본 학생들의 자신감은 취업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학찬
(주)연우
연구개발부문장 / 상무이사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로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산학협력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에 크게 만족하며, 현재 제품 개발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호 간의 두터워진 신뢰감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발전적이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학협력 체계를 꾸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찬
디자인학부 교수

"기업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고, 학생들은 살아있는 현장실무를 경험할 수 있어 기업과 대학 모두에게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의 진행은 주로 기업 주도의 기술교육과 대학의 창의력교육을 융합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기업과 대학이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식 기술을 유도하여 새로운 제품가치를 창출하면서 기업과 대학의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중국관행연구사업단

중국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인천대학교의 특성화 사업 중 하나인 지역인문학 분야를 견인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중국관행연구사업단. 2009년 설립 이후 인문학적 중국 연구와 사회과학적 중국 연구를 조화시켜 중국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곳의 生生한 활동 리포트!



중국 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중국관행연구사업단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상거래, 기업 및 노동 등 중국의 경제관행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더불어 가족 및 민간 조직, 민간신앙에서 보이는 내부구조와 운영질서 등 사회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용, 지연, 혈연 등 화교사회 내부의 작동원리를 파악하여 중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관행의 현지화를 고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및 화교 관련 연구 자료를 집적, 서비스하는 중국 · 화교연구자료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연구의 중추, 중국관행연구포럼

중국관행연구사업단에서는 중국관행 관련 연구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중국 연구자 간 폭넓은 학술정보를 교류하고자 매월 「중국관행연구포럼」을 개최한다. 「중국관행연구포럼」은 사업단의 전임연구원들과 일반연구원들의 개인별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전임연구인력 발표'와 국내외 저명한 중국 연구 전문가들을 초빙해 연구 아젠다와 관련된 강연을 듣는 '외부인사 초청 포럼'으로 구성된다. 공개적이고 생산적인 학술교류의 장인 「중국관행연구포럼」을 통해 중국관행연구사업단은 국내 중국 연구의 중심이자 학문공동체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다.



'관행'을 통한 중국 다시보기!





중국관행연구사업단

지난 10여 년간 고공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은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 또한 점차 제기되고 있다. 인천대학교는 지난 2002년 중국학연구소를 설립, 선구자적 안목으로 국내 중국학 연구를 견인해왔으며 2009년에는 인문학연구소 산하 중국관행연구사업단을 설립하여 인문학적 중국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한 중국관행연구사업단은 공동체의 규범원리이자 무형의 사회운영시스템인 중국의 사회 · 경제적 관행을 연구함으로써 중국사회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중국 연구와 연구 기반의 재구성'을 목표로 중국 · 화교연구 자료센터를 구축하여 중국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의 허브, 화교포럼

중국관행연구사업단은 인천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2010년 「화교포럼」을 창립하고, 화교의 삶과 기억 그리고 경험을 통해 인천을 바로 보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인천의 미래상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화교포럼」을 중심으로 학 · 관 · 민의 쌍방향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인천 지역사회의 문화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지역문화연구를 제고하고 있다.

국제학술회의 개최

중국관행연구사업단에서는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중국 관행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 10월 신설된 이래 제3회까지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그간의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연구 과제를 모색하였으며, 이외에도 작년 12월에는 중국 산서대학 진상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가족과 상업'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상업의 주체가 되어온 '가족'의 역사를 깊이 있게 조망하였다. 중국관행연구사업단은 향후 국내외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인천대학교가 동북아 시대 중국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인천대학교 MBA 교류회

이업종 교류로 상생발전의 길을 열다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신제품 및 신기술을 개발하여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길이 열렸다. 인천대학교 MBA 과정을 이수한 중소기업 CEO를 중심으로 창립된 인천대학교 MBA 교류회는 지난 12월 21일 창립총회를 열고 융합과 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상생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인천대학교 MBA 교류회를 소개한다.

NEW
CREATION

융 · 복합을 통한 가치 창출

지식과 산업의 융합(convergence)이 시대적 화두인 오늘날, 기업경영에서도 이업종 간 교류와 협력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업종 교류란 사업상 경쟁상대가 아닌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이 교류회를 조직하여 회원사 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 Know－How, 전문기술, 인적자원, 판매력 등 경영자원을 상호교류 · 교환하여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고 신 비즈니스(New－Biz)를 창출하는 네트워크 경영활동을 말한다. 다변화되는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이업종 간의 융합 · 교류 활동은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난해 10월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중소기업융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교류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다양한 연계지원 툴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NEW SOLUTION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인천대학교 MBA 교류회는 회원사 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유익한 경영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기술 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조 기술의 개발은 물론, 마케팅 영역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공동수주 및 발주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대학교라는 학연을 밑바탕으로 하는 만큼 인천대학교 MBA 교류회에서는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관공서 및 기업지원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MBA 동문에게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회원사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규 사업을 창출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며, 우수동문 기업 탐방활동을 비롯해 MBA 동문을 중심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인천대학교의 우수 인재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학교의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천대학교 MBA 교류회는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NEW NETWORKING

대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업 간 협력 모델

인천대학교 MBA 교류회는 인천대학교 MBA 과정을 이수한 27개 중소기업 CEO로 구성된 이업종교류회로, (사)중소기업융합 인천부천김포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다. 일반적인 이업종교류회와는 달리 최초의 '학맥'을 중심으로 한 교류회로서 지식 · 기술 · 정보의 융합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 외에도 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통해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남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난 12월 21일 인천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주)삼우에프엔씨 오한준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주)글로벌녹색경영연구원 이재성 대표이사를 사무국장으로 각각 선출한 인천대학교 MBA 교류회는 현재 매월 월례회 개최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Mini Interview

"MBA 동문 간 서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 **오한준**
(주)삼우에프엔씨 대표
인천대학교 MBA 교류회 회장

21세기 다양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에 인천대학교 MBA 교류회를 창립하여 MBA 동문 상호 간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마련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대학교 MBA 교류회는 회원사 간의 단합과 모범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자신들의 독점적 기술을 지키려는 요구가 상충하는 오늘날, 인천대학교 MBA 교류회는 MBA 동문 상호 간 협력하고 교류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대학교 MBA 교류회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교류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합니다.

캠퍼스 건축물도 이제는 글로벌이다

**대학건축물은 누군가의 꿈이기도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곳은 구성원들의 꿈과 열망이 잉태되고 누군가의 롤 모델이 배출되는 산실이기 때문이다.
조형물의 개념을 넘어 사람과 공간이 소통하는 곳, 대학의 정신과 비전이 담긴 곳,
지성의 전당을 대표하는 세계의 캠퍼스로 가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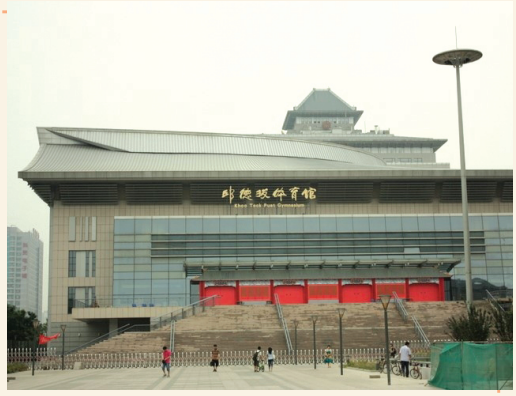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

버지니아대학교는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에 의해 1819년에 설립되었다. 토머스 제퍼슨의 사저인 '몬티첼로(Monticello)'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이다. 캠퍼스의 상징인 로툰다(Rotunda) 건물은 로마의 판테온을 본떠 만든 곳으로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이 대학 내 체육관으로

중국 북경대학교

중국은 지난 베이징올림픽을 준비하며 캠퍼스 내에 경기장을 건설하고 이를 학교 내 체육관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북경대학교 체육관은 그 중 하나로 300억 원이 투입된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태양열과 빗물 재활용 시설, 인공지능 조명 등 자원절약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첨단 시설이 도입되었고, 올림픽 경기 후 수영장과 스쿼시 시설로 개조돼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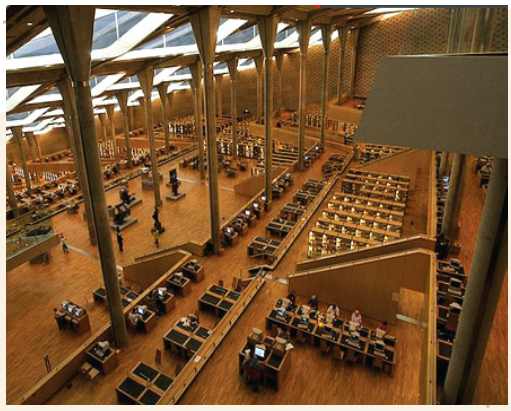




지붕이 잔디로 뒤덮인 공원식 도서관

네덜란드 델프트공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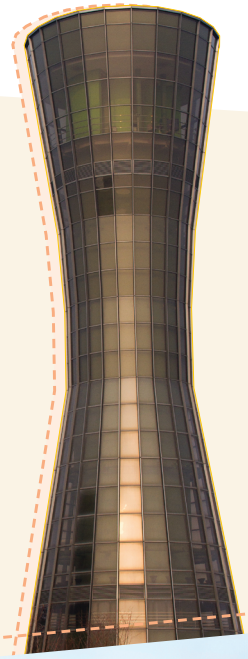
델프트공과대학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학으로서 전통적인 건축양식의 건물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뛰어넘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앙도서관.
공원을 컨셉으로 건축되어 천장이 잔디로 뒤덮여 있고, 상징적인 원뿔형 구조물이 인상적인 건축물이다.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후 잔디(천장) 위에 누워 햇살을 받으며 휴식을 취하곤 한다.



지붕 전체가 자연광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대학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대학교 도서관은 캠퍼스와 해안가 사이에 자리 잡은, 독특한 개념의 구조물이다. 특히 이 건물은 1974년 당시, 이집트 대통령과 영부인이 "역사 속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현대에 재현하자"는 취지로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아 건립에 들어갔다. 원기둥형 건물로 설계되었으며 지붕 전체가 자연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 내부에는 도서관과 천문과학센터, 박물관, 전시관, 회의장 등 다양한 성격의 공간들이 배치돼 있으며 지금도 매년 8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글로벌로 가는 꿈의 전당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송도국제도시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 세계 100대 명문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대학교는 바다를 매립하여 1만 3,000여 개의 콘크리트 파일을 박은 후 52만 9,000㎡(16만여 평) 대지 위에 전체 25개동으로 캠퍼스를 조성해 외국의 어느 대학에 온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학교 내 건물들의 높이가 30m를 넘지 않아 캠퍼스 어디서나 탁 트인 전경을 볼 수가 있으며 학내 모든 건물들은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천대학교 내 건물 중에서도 게스트하우스와 복지회관, 대학본부, 기숙사, 체육관, 그리고 전망타워는 학교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특히 전망타워는 대학 상징물로서 8층 높이의 전망대로 설계돼 있어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기에도 좋다. 인천대학교에는 이 외에도 1만 4,000㎡(4,200여 평) 규모의 도서관과 900여 석의 강당, 통유리로 된 학생식당, 그리고 인조잔디 운동장 등 말 그대로 '꿈의 캠퍼스'를 구현하고 있다.

※ 참조 : 송도IBD 블로그





2012 ● vol. 54
University of Incheon
news

국립대 전환 관련 법률 국회통과, 대도약 발판 마련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이 마침내 성사됐다. 지난 12월 31일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화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대는 올해 1년간 준비를 거쳐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된다. 국립대 전환이 이뤄지면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현재 인천시에서 국가로 전환되며 교원 · 학생들도 국립대 소속으로 신분이 변동된다. 무엇보다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과 우수한 학생 · 연구진 · 교수 영입 등으로 학교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인천대,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인천대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이 실시한 53개 대학평가 지표를 모두 통과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 지난 2월 16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인증패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의 질을 보증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대학평가원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지난해 처음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가운데 31개 대학(15.4%)이 평가를 신청, 인천대를 비롯한 29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심사는 대학 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과정,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영역, 17개 부문, 53개 지표에 걸쳐 72명의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까지 모든 대학에 인증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인증결과는 2014년부터 정부의 행 · 재정지원 기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전체 지표 기준을 통과해 전국 최상위 대학임을 입증해보였다."며 "지난 2009년 송도국제도시로 캠퍼스 이전, 2010년 인천전문대와 통합, 올해 국립대학법인 전환 등 외적 발전에 이어 이번 인증 획득으로 교육과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등록금 5% 인하

인천대학교는 지난 2월 1일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에 비해 5%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금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등록금 인하로 인문 · 사회계열의 올해 신입생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합쳐 254만 9천 원이다. 이는 지난해의 268만 3천 원에 비해 13만 4천 원 적은 금액이다. 또 공학 · 예능 계열은 310만 4천 원으로 지난해 326만 7천 원보다 16만 3천 원 인하됐다.

인천대는 그동안 시립이어서 학교 운영비의 일부를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아 일반 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20~30% 적은 편이며 지난 2009~2011년 최근 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다.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은 내리고 장학금은 늘려 실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훨씬 크다."고 말했다.

한국어학당, 러시아 등 외국 대학생 단기연수 진행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인천한국어학당은 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2주간 한국어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재)인천국제교류센터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러시아(10명), 카자흐스탄(10명), 우크라이나(3명), 몰도바(1명) 등에서 온 24명의 외국 대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어 레벨테스트를 거쳐 A, B, C 3개 반으로 편성, 2주간 인천대 생활관(기숙사)에서 지냈다.

한국어 단기연수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한국어 표현과 관련한 자기소개, 사물이름, 여가 활동, 대중교통, 한국 음식, 병원, 가격, 식당, 전화표현 등에 대한 것과 한국요리실습(궁중 떡볶이 만들기), T-Shirts 만들기 등 체험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2009년 2월 설립된 인천한국어학당은 짧은 기간에도 송도캠퍼스의 최첨단 교육시설과 경쟁력 있는 연수프로그램으로 연간 20여 국가, 63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을 교육해 전국 대학 중 24위(2011년도 대학알리미 기준) 한국어 교육 양성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한국어학당 관계자는 "국내 주재 외국인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위탁교육과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등을 운영해 대학 및 지역사회의 글로벌 위상 강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연구원 설립

인천대학교는 지난 11월 29일 사회과학대학 내 부설연구소들을 통합, 사회과학연구원을 설립했다. 연구원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괄하고 송도의 국제화 비전을 연구, 제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회과학 송도집'이란 학술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장나눔 봉사활동

인천대학교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소외계층들의 포근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12월 2일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연수구 명심원에서 열었다. 안경수 총장과 교직원들은 이날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다비다원 산하의 중증장애 요양 시설인 명심원을 방문, 김장 400포기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인천대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4명도 안 총장과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 생애 처음으로 김

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한국의 중증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태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기뻐했으며 앞으로도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제물포캠퍼스학생회, 불우이웃 돕기에 나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학생회는 지난 1월 16일 인천사회복지협의회노인복지센터(원장 이왕로)의 협조를 받아 학익동, 문학동, 용현동, 숭의동 등 남구 일원의 홀몸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쌀, 생수, 휴지, 김치, 김, 계란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물품들을 전달했다. 처음 사회복지활동에 나선 학생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탄 배달을 하는 등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신혜리 학생은 "어렵게 생활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직접 뵈니 가슴이 뭉클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늦은 감은 있지만 주변을 한번 더 돌아보며 돕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18명의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인천대-인천시, 도시문제 해결 위한 관 · 학 협력체제 구축

인천대학교는 인천시와 함께 도시문제 현안 해결을 위해 관 · 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4일 인천대 도시과학대학과 인천시는 관 · 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시과학대학과 시의 도시계획국은 인천 도시문제의 현안 해결, 미추홀 도시포럼 공동 개최, 공무원 재교육과 도시과학대 학생 실무 교육, 도시 관련 국책사업의 인천 유치 등의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자는 "최근 도시계획 추세가 개발에서 보존 · 관리로 변화하는 경향을 감안, 기존의 물리적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새로운 주민 중심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업지원단, 2012 인천지역 창업 · 중소기업 신년회 개최



동북아 창업의 거점대학으로 성공적인 원스톱 창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정영식)이 지난 1월 12일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세미나실에서 '2012년 인천대학교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신년회'를 개최했다.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에 참여중인 총 15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신년회에서는 인천대학교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참여기업 등 인천지역 관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인천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지원사업 안내 및 기술창업 촉진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외부자문상담회를 통해 창업기업의 애로요인 및 문제점을 해결, 창업정보 교류 등 창업기업의 협력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식 단장은 "인천대학교는 인천을 대한민국 청년창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창업의 거점대학 & 창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갖고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등 다양한 One-Stop 창업지원시스템 지원을 통해 2012년도에도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의 모든 핵심역량을 특화, 집중하여 용이 구름을 만나 더욱 높이 하늘로 오르듯 인천지역 창업기업의 든든한 구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11년 창업선도대학 4년제 대학 실전창업리그 본선진출자 배정 전국 1위를 획득하는 등 청년창업 및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9일에는 인천대학교창업지원단 세미나실에서 창업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2012년 인천지역 창업 및 R&D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대학교 - 한국SW전문기업협회 MOU



인천대학교와 한국SW전문기업협회(회장 이영상)는 지난 12월 SW분야 인재양성과 국가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MOU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술, 기술정보의 교류 및 공동연구 ▲현장연수 및 실습 편의 제공과 학생들의 취업기회 부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교류에 관한 협력 ▲양 기관의 보유시설 및 도서 등 상호이용 협조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안경수 총장은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한국SW전문기업협회와 같은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총장은 "인천대학교는 컴퓨터 관련 학과가 3개(컴퓨터공학부,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있고, 학생 수는 600명이며, 취업률이 60% 정도 된다. 학생들이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기간은 약 2년 반 정도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번 한국SW전문기업협회와 MOU 체결을 계기로 우리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그 어느 대학보다 더 많이 육성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국SW전문기업협회와의 MOU 체결에 기대를 표시했다.

이영상 한국SW전문기업협회 회장 역시 "앞으로는 SW산업 위주로 경제발전을 주도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처럼 컴퓨터와 휴대폰을 결합한 융합SW 분야는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협약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MOU 체결 의의를 강조했다.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 2011학년도 수료식 개최

인천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2011학년도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교육원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2011학년도 수료자는 중등 기초, 심화, 사사 과정 217명, 초등 기초, 심화과정 169명으로 총 386명이다.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지난 1998년 과학기술부 지정 및 지원으로 개원, 인천시를 주축으로 (재)한국과학창의재단, 인천대학교의 지속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최근까지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그동안 4,000여 명의 과학영재를 교육시켜 왔다.

이와 함께 과학영재교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영재를 대상으로 한 삼성꿈장학재단의 '삼성꿈장학생 공부방 지원사업', 남구청과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취약계층 아동 창의 · 논리적 사고 향상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다문화 과학영재교육' 등 다양한 계층의 과학영재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김강우 과학영재교육원장(화학과 교수)은 "매년 수료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한 관심과 시선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부디 우리 교육원 수료생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취를 이루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른 과학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천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장 취임

지난 2월 1일 인천시 로얄호텔에서 개최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서동만 (사)충청포럼 경기지부장이 14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했다. 서 회장은 (주)대림테크를 설립,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인천 서구중소기업협의회장, 순천향대병원 홍보대사, 인천경찰청 발전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학과 · 단계별 워크숍 진행

인천대학교는 지난 12월 21일 공과대학 강의실에서 '학과 · 단계별 진로 코칭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은 인천대 인재개발원이 주관했으며, 재학생과 예비 졸업생들의 취업상담을 위해 학과별 진로 · 취업 전담교수가 총출동했다. 제자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스승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이날 부대행사로 열린 취업 강좌에는 이채안 (주)한국능률협회 전문강사가 연사로 나와 학생들에게 유용한 취업 비법을 소개했다.

인천대 인재개발원은 재학생들의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천직발견',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7가지 습관', '성공을 바인딩하라' 등 3개 과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성미영 인재개발원장은 "인천대 동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 강하고 깊게 심어 주기 위해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할 최대한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기업이 원하는 참일꾼을 더 많이 배출해 내고 우리 대학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는 올해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10개 학과 300명을 선발, 전문 컨설턴트가 관리하는 '학과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영대학-남인천세무서 업무협약 체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학장 김준우)과 남인천세무서(서장 정극채)는 지난 12월 22일 인천대 경영대학장실에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실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재학생들의 세무실무 교육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현장교육 및 취업알선 등은 물론 위탁교육과 협동강의 등도 참여할 방침이다. 김준우 경영대학장은 "세무회계학과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남인천세무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번 협력체결을 반겼다. 정극채 남인천세무서장 또한 "학생들의 현장교육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겠다."고 견실한 협약추진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도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체결을 축하했다.

인천대-미래국제재단 새싹멘토링 봉사단 출범



인천대학교와 미래국제재단이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협약한 인천대학교 새싹멘토링 봉사단이 지난 12월 8일 출범했다. 인천대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인천대 멘토로 선발된 100여 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안경수 총장은 "새싹멘토링 봉사단 멘토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 가정이 어려운 인천지역 중 · 고등학생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며 "초심을 잊지 말고 새싹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 14개 대학 중 가장 훌륭한 멘토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멘토로 선정된 100여 명의 인천대 학생들은 모두 8개 반으로 구성돼 멘토 1인당 5~6명의 인천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맡게 된다.

장영철 KAMCO 사장, 인천대학교서 특강

지난 11월 21일 인천대학교 복지회관 소극장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장영철 사장의 특강이 개최됐다. 인천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기업이 바라는 미래 인재'란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강연자로 나선 장 사장은 "미래의 인재인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소유해야 한다."며 "특히 자신의 성과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 사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미래 인재상과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2012 수능 정시모집

인천대는 지난 2월 22일 2012학년도 정시모집 최종 등록을 마감하고 총 1,854명을 선발했다(2.23 현재). 가군에서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1,409명을 일반학생 전형으로 선발하고, 다군에서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 27명을 포함하여 수능우수자 전형, 농어촌학생 전형, 특성화(전문계)고 출신자 전형 등 총 445명을 선발했다.

가군 일반학생 전형은 인문 · 사회계열과 자연계열에서 수능 80%와 학생부 20%를 합산해 선발하고, 예체능계열에서는 1단계에서 수능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 실기점수와 학생부 성적 등을 합산해 최종 선발했다.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다군에서 수능 80%와 학생부 20%를 합산해 선발했으며 수능 4개 영역 또는 외국어/한문 영역을 포함해 5개 영역에서 1등급이 2개 이상인 수험생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외 다군에서 수능우수자 전형과 농어촌 전형, 특성화고 전형이 이뤄졌다.

한편, 2012학년도 전기 편입학전형 최종 등록을 마감한 결과 외국인편입생 24명을 포함하여 총 306명이 등록을 마쳤다(2.23 현재).

시민대학 주관,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아카데미' 개설

인천대학교 시민대학 주관으로 열리는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아카데미'가 2012년 3월 6일 개강한다. 인천시 주거유형별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5.45%(706,727세대)로, 이로 인한 각종 사회적인 갈등으로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천대 시민대학과 인천시가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교육과정은 2012년 3월 6일 개강하여 총 15주 45시간(주1회, 3시간)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발전방향과 민주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기법 창출로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과정과 함께 공동주택의 주민자치와 커뮤니티 활성화 배경의 중요성 등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2 신규 임용교수 명단

국어국문학과 **채숙희**
영어영문학과 **이용화**
분자의생명전공 **강하라**
창의인재개발학과 **박용호**
법학과 **문상일**
에너지화학공학과 **이창연**
건설환경공학전공 **허종완**
도시설계전공 **권영상**
물류대학원 **신광섭**
산학협력단 **윤석윤**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전광길**

University of Incheon

귀하의 고귀한 정성과 관심이 인천대학교를 세계 속의 명문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발전기금 구분 및 용도

대학발전기금은 시설투자와 연구사업, 장학사업 등 전액 인천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투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구분	용도
일반 발전기금	기부하신 분이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일임한 기금으로, 대학의 중장기 제반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지정 발전기금	기부하신 분이 특정 대학(원), 학과(부)에 지정 출연한 기금
목적 발전기금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

기부 참여방법

자동이체(CMS) : 기부자가 직접 은행에 가는 수고 없이 기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결재 :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incheon.ac.kr) 접속 후 신용카드로 발전기금을 기부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급여공제 : 본교 교직원에 한하여, 매월 급여에서 약정하신 일정액을 공제하여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납부 : 대학에 방문하여 직접 기부하시는 방법입니다.

ARS 모금전화 : **060-703-1212**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에 3,000원의 발전기금이 적립됩니다.

무통장 입금 :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개설된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 후 전화를 주시면 기부금 관련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1325-01-000611** (예금주 :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

예우 프로그램

구분	내용	PRESIDENT'S HONOR				PLATINUM HONOR	GOLD HONOR	SILVER HONOR	BRONZE HONOR	PARTNERSHIP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기부자 명예헌정 및 예우	건물명칭 부여	●								
	흉상/존상 제작	●	●							
	부조상 제작	●	●	●	●					
	강의실 명칭 부여			●						
	사진동판 제작 (180mm×200mm)					●	●			
	사진동판 제작 (180mm×50mm)							●		
	동판명패 제작 (180mm×50mm)								●	●
학교시설 이용편의	도서관 평생 이용	●	●	●	●	●	●	●		
	주차장 무료 이용	●	●	●	●	●	●	●		
기념품 및 간행물	감사패	●	●	●	●	●	●	●	●	
	기념품(생일/창립일)	●	●	●	●	●	●	●	●	
	정기간행물	●	●	●	●	●	●	●	●	●
	감사문	●	●	●	●	●	●	●	●	●
	개인달력 제작	●	●	●	●	●				

※ 상기 예우 프로그램은 후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약정)인	성명(상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구분	분 류	일반( ) 동문( ) 학부모( ) 재학생( ) 교직원( ) 기업 · 재단( )		
		동문 · 재학생	입학년도:	대학(원):	학부(과):
	연락처	자 택 주 소		전 화 번 호	
		직 장 주 소		전 화 번 호	
		직장명/부서		직 위	
		e-mail		휴 대 폰	
기부(약정)액		금 원			

납부방법	무 통 장 입 금	농협 :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
	일 시 납	년 월 일 납부(예정)	
	분 할 납 / 월 납	년 월 일 ~ 년 월 일 월납부액 : 원(회)	
	자동이체 (CMS)	은행명: 결제일: ☐ 5일 ☐ 15일 ☐ 20일 ☐ 25일 계좌번호:	
	교직원급여공제	공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까지	
기금출연권유자		※ 기금출연 권유자 명기 시 반드시 기부자께서 자필로 권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전화(휴대전화):	
약정 방법 안내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인천대학교 총장 귀하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인천대 레스토랑 본아뻬띠

'bon appétit'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3층에 개장한 본아뻬띠에서는 특급호텔 출신의 조리장이 선보이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미 뷔페를 비롯하여 각종 코스 요리와 출장뷔페, 도시락 등 고객의 취향에 맞는 다채로운 메뉴를 맛볼 수 있으며,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약선 및 궁중음식 등 차별화된 맞춤형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레스토랑, 본아뻬띠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글로벌 한국교육을 선도해가는 인천대학교의 미래를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 업 시 간 점심 11:30 ~ 14:30 / 스낵 15:00 ~ 17:00 / 저녁 17:30 ~ 21:00
예약 및 문의 032) 858-1231~2



보내는 사람

주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6.1 ~ 2012.5.30
인천우체국
승인 제40075호

인천대학교
University of Incheon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12-1)
406-772

풀칠하는 곳

Thanks to...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해 주신 분들

2011.11.01 ~ 2012.01.31

100만원 이상

성명	대학과의 관계	기부액	성명	대학과의 관계	기부액
재단법인 미래국제재단	법인	300,000,000	전달수	기업	5,000,000
신한은행	기업	100,000,000	잉글리쉬엔	기업	3,411,000
인천직업전문학교	법인	25,000,000	변윤식	교원	1,500,000
㈜대한시스템	기업	10,000,000	㈜단건축사사무소	기업	1,000,000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10기 원우회	동문	10,000,000	㈜브렉퍼스트	기업	1,000,000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동문	10,000,000	김영희	교원	1,000,000
심경섭	동문	10,000,000	박종승	교원	1,000,000
영림임업㈜	기업	10,000,000	양창수	교원	1,000,000
체육진흥부(배드민턴부일동)	동문	10,000,000	이태수	교원	1,000,000
행정대학원30대총원우회	동문	10,000,000	태원각	기업	1,000,000
김교흥	동문	6,646,510	행정대학원24기원우회	동문	1,000,000
이엘씨(ELC)영어교육	기업	6,164,570	홍기원	직원	1,000,000
오복자	동문	5,000,000			

100만원 미만

성명	대학과의 관계	기부액	성명	대학과의 관계	기부액	성명	대학과의 관계	기부액	성명	대학과의 관계	기부액
배양섭	교원	600,000	김승환	직원	150,000	조한장	동문	90,000	김현진	동문	30,000
조중휘	교원	450,000	김영주	직원	150,000	한상철	교원	90,000	문종욱	동문	30,000
박인재	학부모	400,000	김진우	동문	150,000	한상혁	직원	90,000	박도균	동문	30,000
김기웅	교원	300,000	박종욱	교원	150,000	유혜경	동문	75,000	박명순	직원	30,000
김남춘	동문	300,000	신원태	교원	150,000	임 순	교원	75,000	박일충	직원	30,000
김영관	교원	300,000	우인성	교원	150,000	고민정	교원	60,000	박정희	동문	30,000
김주영	동문	300,000	우종택	교원	150,000	곽용성	직원	60,000	박진표	직원	30,000
미상	개인	300,000	유정흔	동문	150,000	김규원	교원	60,000	배가람	동문	30,000
박인호	교원	300,000	윤 용	교원	150,000	김순옥	직원	60,000	서상범	직원	30,000
박창화	교원	300,000	이미가엘	교원	150,000	김영구	교원	60,000	성정옥	동문	30,000
박향경	동문	300,000	임주택	동문	150,000	김태영	직원	60,000	신천수	직원	30,000
백덕렬	개인	300,000	최호규	동문	150,000	김현진	교원	60,000	신현호	동문	30,000
손천택	교원	300,000	㈜제노시스	기업	100,000	김희강	동문	60,000	유병순	동문	30,000
신동욱	동문	300,000	곽문선	동문	100,000	박종석	직원	60,000	윤병선	동문	30,000
윤찬원	교원	300,000	김장성	동문	100,000	손정숙	직원	60,000	이병기	동문	30,000
이갑영	교원	300,000	오철민	동문	100,000	오복자	동문	60,000	이상봉	동문	30,000
이군익	동문	300,000	최예선	직원	100,000	유현국	동문	60,000	이정희	직원	30,000
이병수	교원	300,000	강경태	동문	90,000	이동엽	동문	60,000	이종훈	동문	30,000
이상락	교원	300,000	김교흥	동문	90,000	이선식	직원	60,000	이진욱	동문	30,000
이승민	동문	300,000	김순중	동문	90,000	최명종	직원	60,000	임경님	개인	30,000
이재석	교원	300,000	김정곤	교원	90,000	김평현	동문	50,000	정수민	동문	30,000
이재성	동문	300,000	김찬주	교원	90,000	문희중	동문	50,000	최현아	동문	30,000
이종열	교원	300,000	박 웅	동문	90,000	서재신	직원	40,000	추나영	동문	30,000
이찬식	교원	300,000	박은경	교원	90,000	이효정	동문	40,000	한상길	동문	30,000
최근영	동문	300,000	신동태	동문	90,000	정구천	직원	40,000	한현미	개인	30,000
최두원	동문	300,000	신호수	교원	90,000	강병민	동문	30,000	홍주학	동문	30,000
충남집	기업	300,000	안춘순	교원	90,000	강현자	동문	30,000	김인영	동문	20,000
함정호	교원	300,000	우창기	교원	90,000	김규만	동문	30,000	윤희랑	동문	15,000
김희철	동문	200,000	윤덕영	동문	90,000	김성은	동문	30,000	이두영	동문	10,000
권기체	직원	150,000	윤영돈	교원	90,000	김은희	동문	30,000	이성호	동문	10,000
김광열	직원	150,000	이숭열	직원	90,000	김재철	동문	30,000	조철영	동문	10,000
김길원	교원	150,000	임찬옥	직원	90,000	김종인	직원	30,000			
김병훈	동문	150,000	장인우	교원	90,000	김지훈	동문	30,000			
김숙진	동문	150,000	조윤구	동문	90,000	김치용	동문	30,000			